

기획

■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 좌담회

학술지 『기억과 전망』이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일시: 2018년 8월 14일 오후 2시~4시

참여자: 정근식(전 편집위원장), 정일준(편집위원장),
박주원, 황정미, 이호룡(이상 편집위원),
신형식(연구소장), 최종숙(학술지 담당자)

학술지의 방향성

신형식: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열과 성을 다해 『기억과 전망』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주신 정근식 편집위원장의 퇴임 기념으로 마련한 편집위원 좌담회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담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편집위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 연구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에 의하면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운동만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

운동 연구에는 한계가 있어요. 다만, 내년이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한국민주주의의 기원을 3·1운동 시기까지 확장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내년 2월에 1권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또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등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해 지원하고 기념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는 새 정부의 공약사업입니다. 이에 의거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3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시민사회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겠다는 중기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들도 『기억과 전망』에 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편집위원 여러분들께서 학술지 『기억과 전망』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논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지난 10년 동안 『기억과 전망』은 형식적으로는, 학술지를 등재학술지 체계로 전환시켜서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주제에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내용적으로도 운동의 역사성을 기록하고 당대 여러 분야의 고통을 전유하고 기억하여 의미화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기억과 전망』이라는 학술지를 대중적으로 확대하

고 체계화하려고 달려왔던 시간이었고, 민주주의라는 화두 속에서 여러 운동들이 가지는 기억을 폭넓게 확장시키고 의미를 전유하려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달려왔던 시간을 뒤로하고 주제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기억과 전망』만이 제기할 수 있는 주제, 의미, 위치, 위상이 무엇일까에 대해 다시금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처럼 학교나 학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술지나 잡지와 달리, 혹은 정당이나 정부 산하의 단체에서 제기하는 담론과 달리, 저희 『기억과 전망』이 제기해야 되고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지요. 저희 지면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국가나 정부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특정한 단체나 시민단체에 기반을 둔 것도 아니며 학술적인 학회와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해야 하고 해줘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정일준: 『기억과 전망』은 학계에 속해 있는 잡지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볼 수도 있죠. 『역사비평』에 글을 실어도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니라는 평가는 안 받거든요. 쟁점(issue)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학술적인 함량을 덜 갖췄다고 해도 시의적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기억과 전망』에서 엄격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특집으로 실으면 금방 전문성에 대한 시비가 나오는 거죠. 자기들끼리 대충 필자를 섭외했다는 비난이죠.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건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무미건조한 잡지가 되어 버리는 거죠. 학술지 중의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일 년에 네 번 발간하는 계간지 정도는 돼야 합니다. 우리는 제도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니까 사이트도 운영할 수 있고, 제도의 힘을 믿고 그걸 끌고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기억과 전망』이 권위를 얻는 것은 이 잡지를 쪽 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게 될 때입니다. 이걸 보면 한국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가 시기별로나 쟁점별로 모두 포괄된다, 굉장히 수준 높게. 이렇게 돼야 하지요.

박주원: 이제까지 『기억과 전망』은 시대적인 사건과 경험에 대한 증언이나 구술을 채록하고 기술하는 작업이라든지, 노동이나 여성, 지역 운동의 경험을 기억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편집위원을 맡고 나서 혁명론, 국가론, 민주주의론, 시민사회론의 주제로 제기될 수 있는 논의들뿐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기억, 집합적 감정, 구술, 문화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수록되어온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술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좀 더 의미 있는 민주주의의 화두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나 주제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대의 고통을 기억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러한 집합적 기억과 감정들을 민주주의라는 화두로 보다 드러내야 하는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기억을 앞으로의

전망으로 이어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방향성 말이지요. 이제까지 잘해왔던 당대의 운동들에 대한 기억과 기록도 계속 하면서도, 주제적으로 좀 더 소수자, 청년, 노년, 이름 없는 자들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거나 그들의 이야기가 구술될 필요가 있고요. 구술의 저변과 깊이를 좀 더 넓히고 깊게 하는 방법론적인 모색도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의 운동과 현실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좀 더 민주주의라는 화두 속에서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뭔가의 방향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억과 전망』이 이제 투고된 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시기마다 중요한 화두를 던지거나 분석해서 제시할 수 있는 특집 혹은 기획과 같은 지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대 간 간극의 문제

박주원: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은 젊은 세대의 문제를 민주주의 담론 속에서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요.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대 간에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진 등재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는 다른 저널을 만들면서도 느끼는 것인데요 그 저널은 40~50대 정도의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연구 실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화두를 제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간이지요. 등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글 청탁도 쉽지 않고 매번 기획과 편집을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어렵고 심각한 문제는 담론의 풀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시대의식과 전혀 달라진 2000년대 이후 세대의 시각과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어려운 것이지요.

학술운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두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연구자도 쓴 글을 읽어주는 자기 대중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만의 소통 공간에서 이야기 하고 기존의 담론들과는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지요. 어찌 보면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인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가가 문제이지요. 젊은이들의 언어와 저희 언어가 굉장히 단절되어 있고 조직적으로나 언어적, 개념적으로 서로 단절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화두 속에서 이들의 고통을 드러내고 함께 전유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일준: 한국 민주주의가 3·1운동할 때, 식민지였던 때하고 지금은 질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국가라는 단위를 놓고 볼 때 한국만큼 직접민주주의, 온라인·오프라인 공히 잘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국민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나아가 있는데 잘 포착하지 못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큰 틀에서 판이 변하는 건 못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주변의 경험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젊은 세대와 단절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의 생태계 자체가 그렇게 변해 있어요. 민주의를 지닌 신세대가 성장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입니다.

역사사회학 공부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서구의 민주주의가 수백 년 전부터 승승장구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서구가 성취했다고 이상화한 걸 기준으로 삼아서 한국자본주의나 한국민주주의를 재단했어요. 그런데 정작 서구에서는 이상화된 서구자본주의도 서구민주주의도 신화(神話)에 불과하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철지난 것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남들이 허구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때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에 대해서든 평화공동체에 민주주의에 대해서든.

그런데 새로운 세대 2030대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자본주의발달사, 제국주의론 이런 게 하나의 정전(canon)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구동향, 자료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보려면 너무 산 너머 산이거든요. 문턱이 너무 높아졌어요. 결국은 사실에 입각한 새로운

자본주의발달사나 새로운 민주주의발달사도 386 세대나 40대 중반의 연령대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학부나 석사생들은 민주화운동도 돈벌이나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민주화운동했더니 그 보상으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하는 식이죠. 당시 민주화운동은 모든 걸 버리고, 목숨도 걸고 한 것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들에게는 하나의 경력에 불과하죠. 1995년도에 하버드대학교에서 천안문 운동 주역을 불러서 토크를 하는데 하버드생들이 ‘학생운동하면 나중에 정치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을 해요. 그러자 채이링이라는 학생운동 지도자가 “천안문 때 총 쏘는 거 못 봤냐? 커리어는 커녕 죽을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정치경력이 되냐?” 하면서 격하게 반론을 펼쳤어요. 그걸 보면서 미국 대학생들이 곱게 커서 천안문시위를 하나의 정치 캠페인처럼 본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한국 젊은 세대들이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꼭 같아요. “우리는 모든 걸 걸었다”고 하면 끈대처럼 보여요. 전달이 안돼요. 우리에게 그게 결과인데 이들은 목표로 생각하죠. 출세하는 방법처럼 생각을 해요.

정근식: 한국의 사회운동이 진정성 패러다임에서 생존주의 패러다임 이랄까 사회적 자본 축적 패러다임이랄까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위험 운동에서 저위험 운동으로 바뀐 거죠. 이른바 운동권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보다 이른바 사회적 자본이 많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컨대, 전대협이나 한총련과 같은 전국적 조직의 대표 출신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으로 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같은 운동권 출신이라고 해도 사후적으로 보면, 사회적 자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사회운동이 과거에는 진정성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운동 자체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방법이었던 거예요.

박주원: 아이들 입장에서 생존 자체가 지금 문제인 상황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죠.

정근식: 사회운동을 사회적 자본 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었죠. 1970~1980년대에는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시위 주동을 한다는 것은 감방 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기본권 보장과 함께 사회운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작은 실천 중심입니다. 요즘 사회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그런 점에서 민주화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명백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이호룡: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정치할 목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정계 진출하면서 일반인들 눈에는 당연히 민주화운동이 정치인 되기 위한 하나의 코스로 생각될 수도 있겠죠. 엄혹한 시절에도 일부 사람들은 정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보편화되었죠. 민주화운동하면서 치룬 희생은 보

이지 않고 안 드러나니까, 지금의 화려한 것만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정일준: 중요한 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사회 전체적인 자산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때 운동이 권위주의적인 조직이었잖아요. 그때 우두머리 했으니까 지금도 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학생운동, 시민운동 할 때 권력의 위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그걸 정상적이라 생각하는 문화가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패하게 되면 범민주진영이 실패하는 거고. 그런 걸 막으려면 내부에서부터 각자의 전문성이나 다양한 경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황정미: 그런데 요즘 대학생 시위의 흐름을 보면, ‘농성 끝나고 아무도 구속되거나 처벌되지 않아야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서울대 시위나 이대 점거농성에서도 비슷한 거 같아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가령 대한항공 직원들의 갑질 항의 시위에서도 얼굴을 가리고 나오잖아요. 신상 털리면 큰일 나니까요. 비록 불의를 못 참고 항의하지만 내 신상은 공개되지 않게끔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데모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개인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정근식: 거꾸로 생각하면 얼굴을 드러내는 게 더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영웅’은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황정미: 그런데 그건 옛날 패러다임 같은데요. 지금은 배고픈 영웅이 그다지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시위하는 사람들이 무능하지 않아요. 최근 이대 점거농성에 대한 연구자들 발표를 보면, 학생들끼리 법률팀, 언론대응팀 이런 팀을 다 짰더라고요. 가령 법률팀에서 아는 인맥이나 이대 선배들한테 법적 조언을 듣고, 성명서를 쓰더라도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식으로 하고요. 미디어팀도 선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기자회견을 조직하고요. 잘 알려졌다고, 먹을 음식은 선배들 네트워크로 조직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조직화된 대응을 하니 장기간 점거농성을 할 수 있었죠.

촛불 이후 달라진 게, 굉장히 일상적인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이랄까, 노인들은 유튜브 보고 태극기 집회 하시고, 예쁘게 꾸미던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 투사가 되어서 ‘탈코르셋’ 하면서, 온라인에서 전쟁을 하죠. 10대들은 10대대로 자기가 부당한 걸 당하면 찍어서 올리고. 일상에서의 정치적 각성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더라도 일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상당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도적 담론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일상의 목소리가 바로 반영될 정도로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갈등이 증폭되어도 그 갈등이 제도적 해결책을 못 찾는 이유가, 그 연결지점을 못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2030세대 사이에 개인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각자 개인이 실력을 키워서 해결해야지 다른 해결책은 호
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빨리 학습하거든요.
난민 반대 논리도 급속해 확산되었구요. 약간 개인중심의 우익
적 가치가 2030세대에게 엄청난 전파력을 갖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목소리를 내준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 사람들은 자기 미디어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
지. 그런 것보다는 그 의미를 연결해서 하나의 연결지점을 가지
고 담론화한다든지, 의제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책적인 대응에서도 의제설정에서 상당히 위기가 있다고 느껴
집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가령 젊은이들이 참
여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젊
은이 몫을 만들어주는 것과 아젠다를 만드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상에서 나오는 갈등을 정책 아젠다로 담아내는 그
런 작업은 연구자들이 긴 호흡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원: 황정미 선생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느 정도는
이야기의 창구를 넓혀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
순히 사람이나 창구를 마련하는 것보다 소수자와 젊은 세대들의
고통과 문제를 아젠다로 만들어내는가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 계몽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채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지 않도
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어떻게 그러한 고민을 담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겠지요. 기본적으로는 이에 대해 깊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드러낼 수 있으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특집을 기획하고 구성할 때 이번 『기억과 전망』에서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기억과 전망』이 10년 동안 해온 나름대로의 체계와 대중적 기반이 있고, 또 논문 공모라는 개방적 형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집을 구성해서 고민을 신는다고 해서 잡지의 방향성이 편집위원회의 의도에 치우치게 되지는 않을 거라 믿고요.

새로운 방법론 도입 필요성

황정미: 『기억과 전망』의 정체성으로 그동안 쌓인 것이 있지요. 학술지 시스템이 다소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양 쪽을 모두 살릴 점점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가령 기획, 특집 등은 더 늘리고, 기존에 해왔던 기록화 작업도 계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의 주관적 회고는 정형화된 이야기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공식대로 이야기가 형성되지요. 사실 자기 경험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접근을 많이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생애사, 구술사 등의 방법론도 활용해볼 수 있고, 혹은 경험적 데이터를 양화하는 방법도 있고. 기록 작

업은 새로운 접근으로 그 정체성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신형식: 구술이나 기록하는 것에 관하여 새로운 방법론이 있으면 말
씀해주시죠.

황정미: 원래 운동하신 분이 자기 경력 위주로 이야기하면 다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생애사적 접근으로 하면 가령, 자기 사적 일상
경험과 그 시대상이 그분의 공적 활동과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구요. 아니면 어떤 대표적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에서 새로운 사료적인
것을 찾아낸다는가 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요.

최종숙: 회고록은 나름 인기가 있는 코너이기는 해요. 『기억과 전망』
에서 회고록이 재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학술지
위주로 가다보니까, 전문적인 논문은 아니고 회고록은 약간 쉬
우니까. 과거에서 배울 것도 있고.

황정미: 저는 그걸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잡지의 아이덴티티
가 될 수 있으니. 제가 옛날에 문화운동단체 대표하신 분을 인
터뷰한 적이 있는데, 하다 보니 대학 시절 경험담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단체 대표로서 경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애 전반 흐름에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오게 됐나,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딱딱하지 않고 흥미롭기는 하더라고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일준: 이미 지금의 구술사 방식도 필요하고, 그분 자체가 대표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다 알려진 인물의 알려진 거니까 재밌는데.

그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나름 성공, 유명하신 분들이고. 정작 주목을 받고 조명 받을 분들은 본인 자신이 숨기고 누군가 가서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매개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걸 연구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호룡: 지금 회고록도 인기가 있기는 하죠. 다만, 회고는 현재적 관점에서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왜곡될 수 있고. 지금 회고록 받는 형태는 상당히 일방적 형태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요.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술과 대담을 결합해서 하면 어떨까. 사료관에서 하는 것처럼 구술로 신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옛날 활동가를 찾아가 특정 주제에 대해 얘기를 끄집어내고 숨은 비화를 끄집어내고.

정일준: 그런 걸 하려면 사업회나 그런 걸 검증(screening)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요. 앞으로 회고록을 받으면서 심사해야 한다면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나 회고록에서는 자기 역할을 과대 포장합니다. 한 시대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걸러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과 전망』에 실은 게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곤란할 수도 있어요. 엄밀한 학술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기억에 맡겨두었던 건데 다른 이들의 기억과 상충될 수 있어요. 돌려 읽어보면 걸러낼 수 있어요. 몇 %나 진실인지. 중장기적으로는 학술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 회고록은 학술 영역은 아니지만 제대로 사료적 가치를 가지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황정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논문 공모사업을 쭉 계속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응모하게 될 텐데,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주제의 변화나 새로운 트렌드, 혹시 그런 면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을까요?

최종숙: 공모사업에 어떤 트렌드가 있다기보다 우리 학술지의 특징 중 하나가 석박사들이 데뷔하는 지면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2, 3년 전부터 매호마다 석사 바로 한 논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용지수가 떨어지는 면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세월호라든지 트렌디한 주제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즉시성 지수는 또 높아요. 원고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정일준: 지금 석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데이터도 있고 이런 기금도 있고 이런 걸 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알리고 격려해야 합니다. 사실은 민주화운동도 연구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민주화운동사도 몇 십 년 쌓인 거잖아요. 새로 연구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도와주면서 연구를 증진해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제도화 되는 거죠. 지금 이 단계에서 못하면 당분간은 민주화운동 연구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더 필요해요.

황정미: 젊은 연구자들은 감각이 다르죠. 공모전에 나름 강점이 있을

거예요.

박주원: 말씀하신 대로 회고나 구술의 방식을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덧붙인다면 잡지 전체에서 항상 정기적으로 시평을 만들거나 항상 특집을 낸다거나 구술을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고정적인 형식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호에 어떤 주제를 던지느냐에 따라 그 주제에 적합한 형식으로 가져가면 될 거 같아요. 그 시기에 특집이 좋으면 그것을 심화시켜서 하면 되고, 상호 대담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논쟁이 필요한 주제도 있을 것이고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해당 시기에 『기억과 전망』이 민주주의를 다루는 다른 매체와 달리 어떠한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물음을 던지고 이를 새로운 형식으로 담아내는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10주년이니 뭐 하자, 30주년이니 등등의 경험에 계속 끌려가는 방식이 될 위험이 있는 거고요. 특집을 기획하면 공정한 경쟁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학술지가 좋은 화두를 제기하고 좋은 글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글을 수록하는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집 글도 예외 없이 심사를 거치면 되고, 우리가 공정성에 대한 일관된 룰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만일 특집이나 기획의 주제를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하고 공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연구재단 학술지 시스템의 문제점

이호룡: 그런데 『기억과 전망』이 학술지로 넘어오면서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편집 의도를 살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주제 정하면, 특집 주제에 대해 원고 청탁도 하고 편집의도를 살릴 수 있는 체제였어요. 지금 등재지 선정에 급급해서 학진 규정에 맞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과 전망』을 발간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근식: 특집 주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특집 주제는 그때그때의 사회적 쟁점이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컨대 2015년에 핵심적인 쟁점이 뭐였지? 『기억과 전망』의 특집 주제를 보면 쉽게 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요. 『동향과 전망』 같은 잡지는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아쉽지요. 연구재단 논문체제로 가면서 이른바 특집이 갖는 역사성 이런 것들이 약화된 거예요.

최종숙: 과거 『기억과 전망』 차례를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왔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과거사, 2000년대 중반에 민주화세력의 분열, 또 몇 년에 미네르바 관련 쟁점, 이런 식으로 쪽 해왔더라고요. 근데 학술지 체제가 강화되면서 약화돼서 아쉽기도 하고요.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정근식: 전면적으로 부활은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는 필요하죠.

이호룡: 대중평론지의 요소를 『기억과 전망』에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시론(時論)하고 시론(始論). 현재 흐름을 논평하는 칼럼을 실을 필요도 있고, 민주주의연구를 선도한다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하는 시론(始論),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글도 실을 필요가 있죠. 논문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에세이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기억과 전망』만의 특색이 뭔가, 그런 것들을 이런 시론을 통해 확보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집진 재구성과 관련

정일준: 『기억과 전망』 편집 방향은 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전히 사람입니다. 어떤 분을 모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좋은 분을 모셔와야 해요. 아무리 제도가 발달되어도 좋은 사람을 모셔야 할 뿐 아니라 그분들이 깊이 관여(commit)를 해 줘야 해요. 옛날처럼 어떤 운동은 누가 중심이 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이미 정형화된 것을 접촉해서 논문 받고 하면 철지난 얘기가 되고 말죠. 현재의 떠오르는 쟁점을 취급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해요. 연구소에서 그런 걸 전담하는 분이 있으면 현장에도 가보고, 유력한 사람을 확인하고 하면 좋은데 그걸 쫓아가는 조직 관행이 있어야지 포괄이 됩니다. 이미 신문에 나서 찾아가면 그림자도 쫓아가기 힘들고, 그런 난점이 있어요. 제 바람은 편집진 인원에 제한이 없으니 두 배 이상 늘렸으면

좋겠어요.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로 말이죠. 촛불집회 이후 현재 민주주의 특집을 소수자 등 새로운 영역을 얘기하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힘들다는 게 확인된 거고요. 편집진을 확대 강화하고, 새로운 주제를 발굴해야죠. 최신 주제는 기존 제도권 안에 있는 교수나 학자가 인지하기에는 무정형적이고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어서 힘들죠.

정근식: 저 역시 편집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편집진을 구성할 때 각각의 편집위원들에게 임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나 사회운동 연구의 중요한 분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 촛불 이후의 한국의 ‘미투’운동이나 소수자 문제, 사회적 민주주의, 장애인 문화와 장애인 운동을 담당하는 편집위원이 있으면 균형을 잡기가 좋을 듯해요. 지금까지 편집위원은 학문 분야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사회적 민주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담당하는 편집위원이 추가되면 좋겠어요.

신형식: 그분들이 여기에 글을 직접 쓰면 더욱 좋겠어요.

정근식: 편집위원이 직접 글을 쓰거나 그런 글을 발굴하는 거죠. 민변에서도 그 해의 중요한 민주주의 관련 재판 판결문을 분석하죠. 그런 걸 의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편집위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글을 쓰거나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을 발굴해야 해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연구소가 편집위원 개개인에 대해 구체적인 주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형식: 동의하고요. 문제는 학술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편집위원들이 영역별로 젊은 필자들의 글을 추천받아서 심사를 통과해서 외화 되어서 나오는 글은 일반 대중들이 보기 쉽지 않아요. 딱딱합니다. 심사통과해서 나오는 논문 말고 오늘처럼 편집위원들의 토론회라든지 좌담회 등 새롭게 충원된 편집위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점검하여 그 결과물을 『기억과 전망』에 실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일준: 전에 『창작과 비평』에서 실험을 했던 거는 그런 거죠. 좌담회 형식인데,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뉘어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몇 쪽씩 써와서 그것을 함께 토론하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할 거 같아요. 계간지가 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계속 반년간으로 내야 한다면, 그런 형식을 도입하면 좋겠네요. 논문으로만 하면 너무 딱딱해지니까.

황정미: 다른 학술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고 청탁에 옵션을 두어서, 정식 투고논문으로 하고 싶으면 절차대로 심사를 거쳐야 하구요, 논문 형식이 아닌 자기 나름의 글을 쓰고 싶으면 심사를 생략하는 대신 원고료를 드리는 거지요. 필자에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심사를 통과해서 실리면 정식 논문으로 카운트되지요. 대부분 학자들은 논문으로 실기를 원하고, 단체 활동가나 현장에 있는 분한테 청탁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최종숙: 지금처럼 등재지 체계 경우에는 투고논문 편수가 많기 때문

에 잘 돌아가는 편입니다. 비정규 논문을 하든가 시론을 하든가 하면 지금하고 체제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등재지고, 연구자들은 업적이 중요하잖아요. 논문은 꾸준히 투고가 되고 있고. 이걸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 외 시대를 조망하는 비정규 논문 특집의 경우 원고 청탁도 해야 하고 다른 형태가 필요한데, 우리가 학회가 아니어서 편집위원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편집위원들이 한 꼭지씩 글을 써주시거나 그런 글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칼럼이라든지 새로운 란을 만들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또 편집진 구성 관련해서 대중평론지일 때는 운동단체 회장 이런 분들도 많이 했는데 학술지 전환하면서 그런 분들이 나가고 연구자 위주 구성이 된 것은, 연구재단 평가 때 편집위원 연구업적이 중요해서 활동가분들이 빠지게 된 것이죠. 문제라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등재지 체제로 가는 한 이런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일준: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간사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편집진이 약간 권한과 시간을 들여서 기획도 하고. 그런 일을 기념사업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란을 만들고 그 역할을 누구한테 맡겨야 해요. 새로운 편집위원이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하라는 것도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집이나, 일반논문이 잘 나오기 때문에플러스해서 서평도 하잖아요. 여기에 좌담회 형식을 더하는 것

이 잡지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 않아요.

황정미: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요즘 회의를 조직할 때 2030단체 활동가를 참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회의에 한 두 명 왔다고 회의 결과가 꼭 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참석한 분들도 답답함을 느끼고요. 문제는 연결하는 매개 고리가 없다는 거죠. 저는 젠더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가령, 2030 페미니스트는 자기들의 관심사가 있고 자기들의 언어를 소통하는 다른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자기 언어로 목소리를 높이게 되지요. 선배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공부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편집위원의 다양한 참여도 중요하지만 어느 분야의 누구를 초빙한다, 이렇게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항상 연결고리를 찾는 식의 담론, 의제를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로벌한 세계에서 미래 비전을 담는 학술지

정일준: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큰 게 오는 걸 더 반기잖아요. 당대에는 세상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그게 민주화운동이다 뭐다하는 것처럼. 지금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회고만 하고 있으면 그런 걸 놓치게 되는 거

죠. 다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논문 쓰고 그러면 이미 늦는 거죠. 조금 더 생동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업회 내부에 민감한 주제를 쫓아가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들한테 글을 쓰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그런 주제에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 이어주는 거죠. 미국 대학, 연구소, 도서관이 살아남는 것은 결국 기금(fund)을 만들어서 후속세대로 하여금 연구하게끔 격려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희망사항이긴 하겠지만, 계간지가 되면 일 년에 한 호 정도는 영어로 발간했으면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연구자들만이 아닙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지금까지 ‘기념’만 했는데 한국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겠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도하고 공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한류, 문화 한류에 더해 민주 한류가 지구적인 관심사로 부상했다고 봅니다.

신형식: 이번 우리 연구소에서 논문공모를 국내 학술논문공모하고 국외 학술논문공모를 했는데, 국외 부문에서 세 편이 선정이 됐어요. 기념사업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국내만이 아니고 아시아민주주의, 세계민주주의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연구 분석한 글들을 이제는 실어야 하지 않을까요? 1970~198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등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외국에서 지원받은 걸 되돌려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널 오브 데모크라시(Journal of Democracy)』는 1990년부터 발간되었는데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가 편집장이더라고요. “세계 민주주의 운동(World Movement for Democracy)” 대회가 2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되는데, 올해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는 전 세계 민주주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데 그들 중 일부는 『저널 오브 데모크라시』에 기고를 합니다. 그 저널을 읽어보면 전 세계 민주주의 동향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앞으로 한국만이 아니고 아시아, 세계로 내다보는 관점에서 『기억과 전망』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근식: 우리 학술지에서 민주주의 관련 저널들을 소개하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동향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연구소장뿐 아니라 기념사업회 임원진도 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NED 모델처럼,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조직, 저널,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발굴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XXXX~~